

정치경제학입문 2025 - 여름학기 1강

자본주의에 대한 첫 번째 규정

- 사회적 분업은 자본주의로 귀결되는가?
 - 사회적 분업은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 BUT 오직 자본주의에서만 생산(분업)의 결과물이 상품으로 교환된다
 - THEN 무엇이 사회적 분업의 결과물이 시장에서 교환되도록 하는가?
 - AND 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결과물이 상품으로 되는가?
-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며, 소비하기 이전에 생산해야 한다.
 -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해야 한다
 - AND 소비의 대상을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 BUT 자연의 대상들은 대부분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
 - SO 자연의 대상들을 인간의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해야 한다(생산)
 - AND 생산이 사회적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소비하기 이전에 '분배'해야 한다
-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로 규정하는 것은 이 분배가 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뜻
 - 왜 이렇게 되는가 OR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 BUT 여기에 답하려면, 분배형태만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 분배 이전에 생산(또는 사회적 분업)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 생산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 자본&노동(자본주의 사회의 모범답안, 주류경제학: 생산수단=자본)
 - 생산수단(생산의 객체적 요소/원료+노동수단...)&노동력(생산의 주체적 요소)
-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
 -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노동력 중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배타적,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다
 - 배타적 소유: 타인이 생산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즉,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주어져 있다
 - 이 결정은 사회 구성원의 필요(욕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
 - SO 자본주의적 생산은 불가피하게 자연발생적(무정부적/무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 개별 자본가 수준에서의 무정부성 및 무계획성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무정부성 및 무계획성
 - SO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발생적 무정부적, 무계획적 성격 때문에
 -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그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 말고는 없다 - 사후적인 판단
 - 생산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 사회적 분업과 상품생산 1
 - 시장경제(상품생산사회)는 결코 사회적 분업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사회적 분업이 하나의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된 결과일 뿐이다
 - 모든 사회적 분업이 반드시 시장에서의 상품교환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 즉, 사회적 분업은 상품생산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님

99 자본론 제1권 제1장 2절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의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한다.

- 사회적 분업과 상품생산 2
 - 사회적 분업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는 생산의 결과물을 굳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음
 - BUT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 자본주의 외의 다른 사회,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제생활(생산, 분배, 소비)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체계적으로 차단
- 자본주의 = '시장경제' = 상품생산사회 ← 자본주의에 대한 첫 번째 규정

자본주의에 대한 두 번째 규정

?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동의어인가?

- 자본주의 = "시장경제" + @ ← 자본주의에 대한 두 번째 규정
- 자본주의에 대한 두 번째 규정 =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개인이 생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BUT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수단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AND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노동력은 가지고 있다
 - SO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
 - 즉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생산사회'일 뿐만 아니라, 소수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이며,
 -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존재를 '노동자',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해서 생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존재를 '자본가'라고 부른다
 -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 노동력의 판매자(=노동자)와 노동력의 구매자(=자본가)라는 두 개의 커다란 '계급'으로 나뉘는 '계급사회'다.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존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인 '노동력(≠노동)'의 대가'가 임금이다.
 - 노동력↔노동 구분 ☆
임금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이지,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 주류경제학은 사회적 분업 일반과 시장경제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 BUT (사회적 분업 - 계획 (상품생산 aka 시장경제 (자본주의)))
- 상품생산과 자본주의, 소생산

- 상품생산은 성립(생산수단의 사적 소유)하나 자본주의(생산이 타인의 노동을 통해 집행)가 아닌 경우 ➡ 소생산 = 소 부르주아적 생산 = 뽕뽕부르주아적 생산
- 소생산자들은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ex.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장님들'
- 소생산자들은 한편에서는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충원 & 대자본에 밀려 끊임없이 몰락

자본주의의 발생

- 자본주의의 발생
 - 최초의 자본주의: 유럽 16~17c
 - 자본주의 이전의 계급사회(노예제, 봉건제): BCE 4~5천년
 - 자본주의도, 노예제도, 봉건제도 아닌 최초의 사회형태? - 공산제
 - 사회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배적 생산관계'
 - 생산관계: 경제활동(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ex. 자본주의 사회: 자본 - 임노동 관계 / 봉건제 사회: 영주 - 농노 / 노예제: 노예소유주 - 노예)
- 공산제
 -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체제
 - 생산수단이 아닌 다른 재산의 사적 소유는 허용
- '원시'공산제 - 인류 초기의 공산제
 - 당시의 원시공산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강요된 결과
 - 인류의 낮은 생산력 수준으로 '잉여생산물'의 안정적인 확보 불가
 - SO 계급/계급사회 발생 불가
 - 계급사회 성립의 전제조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생산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취득(착취, 수탈)하여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 즉 원시공산제의 존속 이유 ➡ 인류 사회 초기의 낮은 생산력 수준의 오랜 지속
-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과 이행
 - 주기적 경제위기 - 공황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자본주의의 성립 조건
 -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존재
 - SO 농노(봉건사회의 주 생산계급)➡임금노동자로의 이행 필수
 - BUT 봉건사회의 농노는 신분적으로 예속된 존재
 - SO 선결조건은 신분제의 철폐 cf.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
 - BUT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농민은 자발적으로 임금(자본주의적) 노동자가 되려고 할까?
- 봉건제에서 토지소유
 - 농노는 영주에게 지대, 공납, 부역 바칠 의무 + 자신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사적 소유=배타적-독점적 소유)
 - 신분제로부터의 자유 & 생산수단(토지)로부터의 자유(사실상 권리 박탈) ➡ '이중의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존재

-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와 enclosure
 - 유럽에서 이 두 번째 자유를 부여하는 과정은 enclosure라는 형태로 진행, 주도자는 토지소유자(지주) 계급
 - enclosure - 영국의 사례
 - 1차 -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축출, 경작지를 목장으로 전환
 - 2차 & 농업생산력의 발전 - 쫓아낸 토지를 새롭게 구획(# 형태), 새로운 영농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 가능해짐(농업혁명 -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중요한 의미)
 - 농업혁명은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 THEN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노동자가 되었을까? - 시차 O
 - enclosure의 직접적인 결과 ➡ 다수의 부랑자와 거지
 - 이들을 규율에 순응하는 임금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 진행
 - 구빈법 Poor Law
 - 구빈원 Workhouse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 문장들을 비판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시오.
 1. 상품생산의 사회적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2. 자본주의란 곧 '시장경제'이다.
 3.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봉건사회의 농노가 신분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 다음 문제들에 답하시오.
 1. 인간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사회적 분업의 상품생산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설명하시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계급이 발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4.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설명하시오.
 5. 자본의 원시적 축적(또는 본원적 축적, 시초축적)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5-1) 인클로저 운동이 자본주의의 발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시오.
(5-2)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은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설명하시오.
(5-3) 별도로 첨부된 글을 읽고 논평하시오.
마크 트웨인 글, 이희재 옮김, [왕자와 거지], 시공사, 2002, pp. 194~7.